

번역/문화번역 이론의 매체이론화 가능성 연구: 재매개론을 중심으로*

김은령

1. 들어가며

영문학을 한국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개인적인 직업으로 인하여, 그리고 텍스트 중심의 문예학이 아닌 문화 전반이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문적 흐름으로 인해, 번역/문화번역이라는 화두는 필자가 최근 천착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지난 줄고에서 번역이란 것이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처럼 기계적인 코딩이 아니며, 원문 텍스트(source text)에서 수용 텍스트(target text)로 그 의미를 물개성적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이러한 번역에 대한 생각은 번역이 단순히 언어를 일대일 대응시키는 코드의 전환(transcoding)이 아니라 소통(communication)이며, 원문 텍스트 보다는 수용 텍스트 중심의 이해에 근간한 것이라는 것이었다(김은령,

김은령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www.kci.go.kr

「여행기」 158).

번역을 일종의 “이해와 비평으로 이해”했을 때(Bery 9), 번역은 언어학적 번역에서 벗어나 문화번역의 의미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탈식민주의적 맥락 속에서 번역을 이해하는 이론가들이 번역의 문제를 탈식민주의 연구와 등가적 위치에 놓고, 권력, 저항, 재위치시키기, 재번역 등의 주제를 번역의 연구영역으로 끌여 들여와 탈식민화의 채널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번역에 대한 재인식에 근간하고 있는 것이다(Robinson 8-12, 31-34).

그런데 필자가 궁극적으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문화번역론 자체가 아니다. 번역/문화번역에 대한 최근 이론들이 소통 매체의 한 단위로 ‘한’ 언어를 최소의 단위로 시작하여 문화의 단위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온 것처럼, 현대의 디지털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같은 최소의 단위가 필요하고, 본고에서는 그 단위를 매체로 규정한다. 즉 매체를 일종의 기호(sign)로 상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메커니즘을 디지털문화의 시스템, 즉 소통 시스템의 메커니즘인 매개화(mediation)에 적용시켜보고자 한다. 이는 번역/문화번역의 이론을 토대로 매체들의 매개 메커니즘을 이론화시킬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이런 고찰을 통하여 현대 디지털 문화의 소통 시스템이 그 자체의 디지털 논리라고 하는 핵심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와 더불어 인간의 소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권력, 경제, 저항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이론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번역가가 “경계선 위에 위치”에서 혼종적 문화를 번역해 가듯(김은령, 「여행기」 168), 매체가 경계선 위의 관점을 어떻게 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번역/문화번역의 위치: 이중 논리 속의 가능성

번역/문화번역의 이론들은 대부분 이중논리 속에서 그 긍정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번역에 관계된 다양한 이론들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보다는 독일어 등을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실로 흥미로운 사실인데, 결국 번역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류의 권력 혹은 힘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 외국화(foreignizing)와 자국화(domesticating, 동화의 번역이라고도 말해짐)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번역이 이중의 방식을 담지하고 있듯이, 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은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주의자 양 쪽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파악되기도 하고(Bery 2), “상호문화화”(transculturation)라는 개념으로 의미화하여 “접촉하는 지대”(contact zone)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써,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구분되어있던 사람들이 접촉하고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으로 서로 간의 읽어가기, 즉 번역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Pratt 6-7). 그리고 이 문화번역은 언어를 포함하여 다수의 상징체계, 사유양식, 서사, 매체 등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문화 간 이동, 횡단, 그리고 소통방식으로 이해된다(이명호 94). 이러한 문화 해석의 과정은 “타자의 언어, 행동양식, 가치관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 가는 행위”(김현미 48)로 일종의 비평과 전유의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번역이든 문화번역이든, 이것을 소통의 이론으로 상정하는 순간, 이 이론들은 공히 이중의 논리 그것도 이중의 역설의 논리 속에서 그 긍정의 힘을 얻고 있음을 보게 된다.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를 번역의 관점이 아니라 번역가능성(translatibility)의 관점에서 출발하는데(이명호 95), 이 번역가능성은 “번역의 궁극적 의미의 근거가 번역 자체에 있지 않고 원작의 특정 내용에도 있지 않으며 제 3의 것, 즉 언어들

의 통일성과 이 통일성이 바탕을 두는 총체성 속에 있음을 시사”하며, “언어가 인간의 의사소통적 기능으로 환원되지 않다는 점, 언어의 본질이 전달(내용, 의미)의 차원을 넘어서는 선형적”이라는 것이다(벤야민 21). 즉 이명호의 말처럼, 순수언어(pure language)라 불리는 이 가능성은 원작 속에 들어있지만, 원작으로 종결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표상 가능한 의미질서로 환원될 수 없는 자질이며, 의미의 전달이나 전수를 통해서서는 도달 할 수 없는 정신적, 이념적 본질이라는 것이다(95). 이러한 관점은 원작과 번역을 구별하고 원작을 다른 언어로 전이시키는 것이 번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며, 원본 또한 원전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번역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고, “번역본도 원본과 마찬가지로 원전을 반복하는 하나의 행위”(96)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번역가능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잠재 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가능성의 상태가 아니라 실재(reality)로서의 잠재성이 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이중의 논리는 번역이론이 문화번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더욱 분명해진다. 문화의 접촉지대에서 발생하는 혼종적 문화현상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소수자의 이민문화를 언급하면서 설명한 ‘문화의 번역 불가능성’이라든가, 중간지대(in-between)에서 발생하는 ‘문화의 혼종성’ 등과 분명 관계가 있다. 번역의 대상을 예술, 문학 작품이라는 텍스트에서 문화로 확장하는 순간, 번역은 이제 ‘번역의 불가능’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두터운 묘사/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을 주장한 기어즈(Clifford Geertz)를 위시한 민족지학을 수행하는 인류학자 등의 연구 방법은 문화번역이론이 전유해야 할 지점들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가 충돌하고 교섭되고, 문화 경계가 중첩되고 있는 현상들을 중층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번역의 불가능성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고 있는 이중논리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중화의 논리는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attari)가 주장하는 번

역의 의미생성과정 논의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다. 그들은 실제의 한 쪽 극단에서는 고정화되고 굳어지고 각질화되고 법칙화되는 움직임, 즉 지층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그 반대쪽에 극단의 지층화 움직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어떤 미리 정해진 것을 벗어난 새로움을 창조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이를 절대적 탈영토화라고 부르며 그것이 일어나는 평면을 공재의 평면(plane of consistency)이라 부르며 이러한 평면들 위의 고원들이 바로 추상기계(abstract machine)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상기계들이 지층에 작업을 하여 항상 사물들을 풀어 놓는 운동과 사물들이 지층에 의해 지층화되고 포획되는 또 하나의 상보적인 운동이 있다고 그들은 설명한다(Deleuze & Guattari 144). 언어 속에서도 이렇게 공재의 평면이나 추상기계가 작동하기도 하는데, 추상기계는 언어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측면을 함의하며, 어떤 고정된 구조로 포괄될 수 없는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배치(agencement, assemblage)의 한 측면인 기호체제가 덧코드화(상대적 탈영토화)의 방식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고, 이와 반대로 배치에서 절대적 탈영토화가 일어날 때 추상기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들이 보기에 좁은 의미의 언어는 표현이 내용으로부터 분리되는 동시에 표현의 형식도 질료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는 “번역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주어진 것을 일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언어가 자신의 지층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층을 재현하며, 이로 인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지층들의 모든 흐름들, 입자들, 코드들, 영토들을 충분히 탈영토화된 기호들의 체계로, 즉 언어에 덧코드화로 번역해 옮긴다”라고 주장한다(62). 여기서 번역은 표현의 형식이 표현의 두 질료를 덧코드화하는 방식 이면서, 한편으로는 두 계열의 기표가 두 기표에 공통되는 기의를 매개로 서로 병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번역이 한쪽의

덧코드화의 측면에만 국한된다면, 추상기계의 작동을 체험하는 것이 될 수 없으며, 일종의 외국화 번역에 다름 아니게 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은 결국 두 언어가 만나는 지점인 “접촉지점”에서 생길 수 있는 번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문화번역의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사항은 바로 공재의 평면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변이과정”을 위한 상보적 운동이다. 위와 같은 번역/문화번역 이론들은 소통의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발견’(heuristic)의 과정들이 되고 있는데, “소통이 [이미 현실태로 있는] 공통된 것의 소통이 아니라 [잠재적인] 소통의 가능성의 소통이고”(진은영 11에서 재인용), 그러한 소통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번역행위, 문화번역수행이라는 점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이론들을 이제 매체이론으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번역가의 과제를 매체의 과제로 돌려 상정해 보려한다.

3. 매체를 기호(sign)로: 투명한 비매개성(immediacy)의 욕망과 순수언어의 잠재성

매체 혹은 미디어와 관련된 문화번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널리 논의되는 것이 문학의 영화(film) 번역이다. 즉 문자 텍스트를 시청각 소통의 시스템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특히 영문학의 경우에는 제인 오스틴(Jane Austen)같이 여러 소설들이 영화한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오스틴의 작품을 영화화한 영화 작품들은 원작에 충실하면서 영화 자체로서의 평가도 대체로 좋았던 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자라는 매체에서 영화라는 다른 매체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을 재매개(remedi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때, 매개를 하는 매체는 어떤 오염되지 않은 매체인가? 등의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다. 이런 질문들은 물론 영화

번역 전문가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번역연구는 누구의 몫인가? 디르크 델라바스티타(Dirk Delabastita)의 말처럼, 영화번역은 영화 혹은 TV 전문가들, 심리학자, 심리언어학자,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음성학자, 사회언어학자, 영화기호학자, 그리고 번역연구자들의 학제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99). 그의 이러한 주장은 번역자체 이론에 그동안의 과도한 노력에 비해, 실질적 (영화)번역에의 연구는 부실하며, 너무나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는 영화번역은 영화번역 나름의 다양한 코드와 시정각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소통 채널,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과 시스템이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주장 속에서 상기되는 점은, 디지털미디어의 문화 소통 상황 속에서, 단순히 번역가가 매개한 것처럼 매체가 매체를 번역한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 디지털미디어의 소통방식은 디지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소통 혹은 번역의 방식은 디지털미디어만의 언어로 다시 재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현상들, 웹, 블로그, 위키, 디지털 비디오 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천착하는 이론과, 그 미디어들을 이용하는 범위를 설정해주면서 동시에 미디어의 사회적 관계와 의미 생산에 대한 지향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번역이라는 것이 단지 내용이나 의미를 전이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뉴미디어는 이전의 원근법을 적용한 회화, 영화,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들을 인정하거나 그것들과 경쟁하면서, 또 그것들을 개조하면서 스스로의 문화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재매개”(remediation)라고 일컬어진다. 이런 개념화의 전제는 각 매체가 단지 매개하는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언어와 같은 기호라고 보는 것이고,

각 매체의 경쟁과 교섭의 과정을 “기호의 놀이(작용)(play of signs)”이라고 상징하는 것이다(Bolter and Grusin 19).

재매개란 용어는 그루신(Richard Grusin)이 제안한 것으로, 재목적화(repurposing)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11). 앞에서 언급하였듯, 문학작품을 영화로 번역하였을 경우, 실제로 그 내용이나 의미와 매체를 구분하게 되면, 매체는 매개역할을 하는 ‘순수한’ 그릇, 즉 오염되지 않는 그릇이 될 뿐이며, 내용은 변용된 그릇에 담겨지게 될 뿐이다. 그루신은 이러한 것은 재목적화로 볼 수 있으며, 재매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콘텐츠, 즉 내용만을 빌려와서 다른 매체에서 재사용(reuse)하는 것이 재목적화인 것이다(45). 그런데 이 경우, 배제되는 것은 매체간의 의식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이다. 오스틴의 영화화의 경우, 영화의 기반이 된 소설의 어떤 점도 그 영화 속에서 지칭되지 않아, 문학과 영화의 매체적 교섭의 흔적이 실제로 보이지 않고, 관객에게 매끄럽게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소설의 내용을 보여준다. 즉 각색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경우, ‘자국화하는 번역’, ‘동화의 번역’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제이 데이비드 볼트(Jay David Bolter)와 그루신이 주장하는 재매개론은 위와 같이 매체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전제를 와해시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들이 제안하는 개념들은 데리다를 비롯한 탈구조주의자들의 이론을 전유한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에게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개념이 오히려 벤야민을 비롯한 번역이론가들의 논의와 더 잘 부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벤야민이 「번역자의 과제」에서 “의미에 의해 굴절되거나 모든 전달을 넘어 더 강력하게 어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전달 불가능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으며, “언어들의 생성과정에서 재현되려 하고 실제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것이 순수언어의 핵 자체”라고 주장한다(138). 그리고 이 핵은 내재되어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으며 표

현할 수 없는 말, 창조적인 말로서 모든 언어 속에 의도된 것이 순수언어”(139)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원천(origin)”으로 볼 수 있고, “사라진 것을 복원하면서 동시에 오지 않는 것을 선취하는 반복적이면서 일회적이고, 기억이면서 발견의 과정”(이명호 95-96)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수언어의 잠재성은 번역의 자유에 의해 실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원작)언어의 마력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수언어를 번역자 자신의 언어를 통해 해방시키고, 작품 속에 갇혀 있는 언어를 그 작품의 재창작을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 번역자의 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벤야민 139).

번역이 이렇게 일종의 이끌림 혹은 순수언어라는 원천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은 매체 차원에서의 “투명한 비매개성의 욕망”(desire for transparent immediacy)과 등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매개성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처럼, ‘직접성’ 혹은 ‘즉시성’이라는 성격을 가진 재매개화과정의 이중원리 중 첫 번째 항목이다. 비매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때, 그 매체성을 지각하지 않고, 그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 혹은 의미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논리이다. 즉 매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의미가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비매개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매개의 욕망”은 단지 현대 미디어의 특질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서구의 시각적 표상이 갖는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 왔다”(Bolter & Grusin 24). 비매개의 욕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은 여러 매체나 미디어에서 라이브 관점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매체 자체는 사라지고 표상 사물의 현전 속에 놓이게 하려는 지점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매체가 표상하는 그 표상 사물을 완전히 “관통해 보려는 욕망”(seeing through)은 서구의 유화 전통에서 “그림그리기 과정을 은폐하려했던 전통”(26) 속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을 디지털미디어에서 실현시키려는 시도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의 논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가상현실은 관객이나 독자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는 기제가 그 핵심인데, 이것은 매체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즉 “현전의 감각”(sense of presence)을 강화하여 현전성을 제고시키고, “투명성의 지각적 비매개성”, 즉 “매개 없는 경험”(23)을 문화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페이스 사이의 매개과정 자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정해 버리고자 하는 것이 이 몰입기제의 목적인데, 디지털 합성의 기술들이 영화에 보편적으로 응용된다든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배우조차도 대체하려는 시도들은 모두 비매개의 욕망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매개론이 흥미로운 이유는 데리다, 벨슨, 굿맨, 미첼 등의 매체 연구자들이 탈구조주의 담론 내에서만 매체들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 한 것과 달리, 재매개화의 핵심에 비매개의 욕망이 있음을 상정하고, 단순히 표상하는 대상과 표상이 동일한 것이라는 매우 순진하고도 신비스러운 믿음을 독자나 관람자들에게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에,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매체간의 충돌과 교섭이 일어나는 이중의 논리가 핵심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매개화는 번역/문화번역에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조망될 때, 순수언어라고 하는 원천을 향한 몸짓과, 그것이 가능하면서도 불가능한 이중의 논리가 매체가 사물을 매개하고 또 다른 매체가 그것을 재매개하는 논리 속에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점이 드러나게 된다.

4. 혼종적 번역/문화번역과 재매개의 진동(oscillation)론

번역/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매체의 매개 혹은 재매개의 문제를 논하고

자 하는 기본 전제는 인간이 수행하는 번역이라는 실천이 오늘날에는 기계, 특히 디지털미디어나 혹은 그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번역론이 언어라는 매체를 넘어 문화 간 번역으로 확장 될 때, 즉 문화번역의 논의로 그 지평이 확장될 때, 많은 이론가들은 경계선 혹은 접촉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 교섭, 그리고 변형이라는 문화횡단 작업을 언급하고 있다.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원본을 “원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다른 역사적 맥락 속으로 인용해들임으로써 이른바 원본 텍스트의 후생(after-life)을 도모”하는 니란자나의 경우나(이명호 102), 문화적 혼종적 공간의 비결정적 성격으로 인해 출현하는, 즉 “문화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저항하는 ‘이국성’(foreignness)의 출현”(102)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가능성을 말하는 호미 바바의 경우 등은 모두 원천으로서의 순수언어의 이중적 논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변형이나 새로운 공간을 향한 가능성을 자신들의 언어로 환원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화들 간의 관계를 벤야민의 근친관계(kinship)의 개념을 차용하여, 그리고 사카이 나오키의 “이 언어적 말걸기(hetrolongual address)”의 개념에서부터 문화들의 “이웃”(neighbor)하는 관계를 개념화 하려한 이명호의 시도(103-4)는 매체간의 매대화문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선 이 언어적 말걸기를 통하여, 상호문화성, 즉 매체간의 상호작용성이라는 문제를 개념화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고, 벤야민에게서 차용한 근친관계의 개념은 디지털미디어의 디지털화의 개념인 “동질화”, 즉 수적 재현이라는 동질화를 통한 디지털화와 융합의 문제를 개념화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에서는 디지털화의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개념화 하는 것까지는 나아갈 수 없으나, 상호말걸기, 즉 매체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움의 출현’에 대한 논리를 매체들의 혼종적 현상과 진동(oscillation)의 특질로 풀어보고자 한다.

매체의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표상의 성격을 지닌 투명한 비매개성은 매체들의 오랜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원리이긴 하나, 이러한 욕망을 문화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힘으로서 하이퍼매개(hypermediacy)는 더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으로 매체사의 오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이퍼매개는 일종의 “다중성”(multiplicity)으로 표현될 수 있다. 비매개의 논리가 표상행위를 지우거나 자동화하도록 유도한다면, 하이퍼매개는 다중적 표상행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한다. “비매개가 통일된 시각적 공간을 제시하는 곳에서, 현대적인 하이퍼매개는 이질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 속에서 표상이라는 것은 세계로 나아가는 창문이 아니라 오히려 ‘창문’자체가 되는 것”(Bolter & Grusin 34)으로 이해된다. 창문을 통해 그 너머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 매체의 속성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이퍼매개의 논리는 매개의 신호를 다수화시키고, 사실주의적 표상의 환상이 축소되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이 원리 또한 투명성의 비매개 욕망에 역사에 대립되어온 매체적 속성으로 콜라주나 몽타주와 같은 기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하이퍼매개의 논리는 번역에서 이질성 혹은 차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실상 유사한 논리이다. 그리고 이 논리는 비매개와 더불어 재매개화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인데, 비매개성이 강조되고, 매개가 억제되는 서구 예술사에서 그 반동에 의해 매체성을 부각시키는 반복적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19세기 기계적인 재생산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된 이후, 특히 사실주의적 기법을 표방하는 사진처럼 비매개성이 핵심적인 매체에서도 하이퍼매개성은 늘 대립적 혹은 상보적인 원리가 되어왔다. 예컨대, 사진위에 사진을 붙이거나 회화, 연필 등 이질적인 매체를 사진위에 덧붙임으로써 일종의 멀티미디어의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쉬운 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전자적인 멀티미디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층위효과(layered effect)”(38)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문화의 경계가 접촉을 통해 중첩되고 혼종화되는 양상은 한 매체가



(그림 5)

이전의 매체들이나 다른 동시대 매체들을 어떻게 개조하고 변형해가는 지를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관계성을 진동론이라 부르고자 한다.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라는 두 원리를 진동하는 매체의 진동은 예컨

대, 그림 1에서처럼, 텔레이션 뉴스 프로그램이 웹상에 올라갔을 때, 또 뉴스프로그램이라는 텔레비전의 속성과 동시에 웹사이트의 GUI (Graphic User Interface)에 맞게 화면을 재구성하여 배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텔레비전의 속성은 그 화면 너머의 실재를 직접적으로 표상해내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매체로 매개되면서, 화면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고, 텍스트와 다른 웹상의 프레임과 교섭하게 된다. 그림1에서 동영상으로 처리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들여다보기”(looking through)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양한 매체가 하이퍼매개된 웹페이지를 “겉보기”(looking at)(Bolter & Grusin 41)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일종의 표면을 겉보기 하면서 동시에 그 표면 너머의 대상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반복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예는 단순하고도 일상적인 것이지만, 진동의 개념은 일종의 문화교섭과 유사하다. 각각의 매체가 진정성 있는 비매개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선행미디어들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 기약하지만, 필연적으로 새

로운 매체는 또 다른 하나의 매체로 인식될 뿐이어서, 결국은 멀티미디어적인 하이퍼매개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이웃”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매체들이 멀티미디어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3의 완전히 새로운 매체로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매체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매체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진동의 원리로 보는 것이 더 유효하다 하겠다.

볼트와 그루신은 이 하이퍼매개의 논리를 매체에 대한 매혹(fascination)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들은 컴퓨터 윈도우 형식처럼, 분절화되는 분절성, 불확정성, 이질성 등을 우선시하고 완성된 예술 대상보다는 오히려 과정이나 수행을 강조하여, 결국에는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접촉하게 되는 일종의 상호작용성이 독자, 관람객, 사용자들을 매혹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31). 이렇게 투명성과 불투명성을 진동하는 것으로 재매개화를 설명하는 논의는 더 나아가 매체, 구체적으로 인터넷의 시스템과 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규정하게도 한다. 『재매개: 뉴미디어의 이해』(*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볼트와 다이앤 그로날라(Diane Gronala)가 공동으로 출판한 『창문과 거울: 상호작용 디자인, 디지털 아트, 그리고 투명성의 신화』(*Windows and Mirrors: Interaction Design, Digital Art, and the Myth of Transparency*)는 뉴미디어 테그놀로지 현상의 핵심이 창문과 거울의 “진동”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이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여 생각한 구조주의자들을 반박하는데서 출발한다. 인터넷이 정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구조주의자들과 달리, 형식과 내용이 분리될 수 없고, 웹이 사용자 자신과 그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반성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투명성”(transparency)과 “반사성”(reflectivity)사이를 진동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Bolter & Gronala 참조).

내용과 형식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는 이미 매체학자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의 오래된 테제로 그 전제하에 “미디어는 메시지다”가 주장 가능하였다. 맥루한의 이론은 앞서 언급한 재목적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유형의 차용, 즉 하나의 매체가 다른 매체 속에 융합되거나 표상되는 그러한 유형의 재매개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형식과 내용의 구분불가능성은 OSMU(One Source Multiple Use)와 같이 하나의 원작이 다른 번역으로 계속해서 번식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이론가 헨리 켄킨스(Henry Jenkins)가 언급하고 있는 “포획”(poaching)의 의미와 유사하다. 켄킨스는 유희적인 텍스트 읽기를,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포획”이라는 개념을 빌어 규정하였다. 자신들에게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만을 포획하고 사냥해 간다는 것이다. 이 때, “독자는, 작가가 되는 것과는 달리, 여행자가 된다. 독자는 타인의 영토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Jenkins, *Textual Poachers* 재인용 175)이 된다. 켄킨스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문화적 브리콜라주(cultural bricolage)”(Jenkins, *Fans, Bloggers, and Gamers* 39)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독자가 텍스트를 분해해 각자의 청사진에 따라 조각과 파편을 재조립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전유하기가 된다. 그런데 이런 켄킨스와 같은 이론가들은 문화 수용자 측면에서의 참여적 수용에 초점을 맞추어 매체의 소통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경험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적어도 매체를 다른 매체로 표상하는 번역의 문제에 국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동의 원리로 설명하는 재매개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매체라 지칭할 때, 그것이 형식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구분되지 않은 것임을 강조할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매체가 다른 매체로 번역될 때 발생하는 매체들 속성간의 복잡한 섞임과 충돌, 그리고 교섭의 과정은 “상호매체성”의 전통이나 “에크프라시스”¹⁹⁾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매개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왜, 무엇을 향한 재매개가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미래적 물음에 대한 논의 또한 번역/문화번역 이론에서부터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창발성과 개혁을 향한 재매개

번역의 의미생성과정에 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견해를 다시 되짚어 보면, 한쪽 극단의 고정화되고 굳어지고 각질화되는 지층화의 움직임과 동시에 반대방향에서 어떤 미리 정해진 것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이것을 절대적 탈영토화 혹은 재영토화(de-/re-/territorialization)라고 불렀다(Deleuz & Guattari 514). 그리고 여기서 지층화되는 운동과 동시에 사물들을 풀어놓는 상보적인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후자가 창조적 변이의 연속이 가능한 운동으로 보고 있다(514). 이미 정해진 언어적 관계들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지층화되는 죽음과 같은 언어가 될 것이고, 언어 속에서도 언어를 가로질러 살아있는 추상기계(abstract machine)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창조적 변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번역가가 번역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원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역사적 가능성을 해방시킨다면, 공허하고 동질적인 시간의 연속체가 폭발되어 역사적 해방이 일어나는 비상사태(emergency)가 되면서, 기존 사회질서와 의미질서에 뚫린 공백사이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구원의 순간”이 발생한다고 이명호는 주장한다(98). 여기서 말해지는 “비상사태”란 것은 사실상 ‘창발성’으로 이해됨이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19) 줄고 「디지털미디어 모델링을 통한 영시의 텍스트 확장 가능성 고찰: 매체성 연구를 중심으로」의 “II. 텍스트의 재매개화(remediation)와 상호매체성(intermediality)의 전통” 부분 참조(김은령, 「디지털미디어」).

다시 말해,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해방적 문화번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이명호의 노력은 공히 번역/문화번역 속에 담긴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변이를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재매개 현상에 대한 논리적 전개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모든 매개는 재매개이다. 우리는 이것이 선형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확장된 역사적 순간에, 모든 현재의 매체들이 재매개체(remediators)로 기능한다고 있으며, 재매개는 기존 매체에 대한 해석의 수단을 또한 제공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는 각각의 매체나 매체들의 성좌(constellation)가 다른 매체에 반응하고, 재배치하고, 경쟁하고, 또 다른 매체들을 개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우리는 기존 매체들을 재매개하는 새로운 매체, 특히 선행 매체들을 재매개하는 디지털매체의 역사적 발전과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형적 역사(linear history)가 아니라, 연계의 계보이며(genealogy of affiliation)이며, 이런 계보 속에서, 기존의 매체들은 또한 새로운 매체들을 재매개할 수 있다(Bolter & Grusin 55).

이 재매개의 논리는 벤야민이 주장하는 바,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오지 않은 것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원천의 진행방향성과 부합되는 주장이다. 매체가 매체를 번역 즉 재매개한다는 것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재매개하는 선형적 계보가 아니라 기존의 매체가, 즉 이전의 것이 새로운 매체를 재매개하는, 오지 않은 것을 선취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마치 기독교가 나타나서 앞선 역사의 이교도적 종교와 같은 역사의 구성체가 지양(sublated)되거나 통합된다고 보는 헤겔적인 지양의 개념(Aufhebung)과 구분되는 재매개의 개념을 주창하면서, 지젝(Slavoj Žižek)이 헤겔의 지양개념에 대해 지적한

바를 수용하여, 새로운 형성의 순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들뢰즈와 가타리가 언급한 창조적 변이과정을 위한 상보적 운동이 재매개의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변이과정의 운동은 재매개를 통해 “개조”(refashioning)와 “복구”(remedy)를 넘어 “개혁”(reform)(49)의 가능성을 잠재태로 가지고 있다. 탈구조주의자들이 모든 해석은 재해석이라고 흔히 주장하듯, 어떤 매개 행위도 또 다른 많은 매개 행위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매개에 다름 아니게 된다. 매개행위에 선행하는 것이 없듯, 어떤 의미에서 모든 매개는 실재적인 것을 재매개하게 된다. 즉 매체 자체가 실재적이며 매체 경험은 재매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매개(mediation)와 실재(reality)의 분리 불가능성으로의 재매개를 전제하는 볼트와 그루신의 주장은 의미 있다(58-59). 대상을 매체가 매개는 것을 매개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실재가 매개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매개 속에, 재매개 속에 실재가 잠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재매개의 논리는 데리다가 의미하는 미메시스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미메시스가 한 대상을 다른 것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두 존재 사이의 유사 또는 동등한 관계를 표상하는 것도 아니며, 예술 작품으로 자연물을 재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미메시스란 두 생산물(products)의 관계가 아니라 두 생산(productions)의 관계이며, 진정한 미메시스란 것은 생산된 것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생산 주체 사이의 관계이다”(Derrida 9)라고 하는 데리다의 미메시스 논의는 시물레이션과 시물라크라의 관계처럼, 매개가 재매개 되는 것이며, 대상이 매개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재매개 논리 속에서 매개와 실재는 분리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모든 매개가 재매개이고, 그 재매개는 실재와 분리될 수 없다면, 재매개하면서 창조적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실재를 개혁하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리고 이 개혁은 실재를 무엇으로 전제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디지털매체들 중 하이퍼매체체계들은 항상 재매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매체들을 디지털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 비판하고 개조하고 또한 개혁한다. 투명한 디지털 응용체계들은 매개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몰입의 방식으로 실재에 도달하려고 하고, 디지털 하이퍼매체들은 매개를 다중화하여 실재를 추구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재매개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때, 실재라는 것은 관람자, 독자, 관객의 경험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번역/문화 번역에 관계된 논의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용자 측면에서의 지각적 실재성이 부각되는 점이다.

개혁으로서의 재매개는 표상 테크놀로지의 개혁, 또 WWW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비매개성을 증폭시키는 등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개혁과 매체가 실재 자체를 개혁한다는 등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등으로 인한 실재 자체의 개혁은 호미 바바가 주창한 “중간 지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의미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매체들간의 교섭과 진동 작용은 우리의 실재를 또한 바꾸게 되는 순환과 소통의 열림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은령. 「디지털미디어 모델링을 통한 영시의 텍스트 확장 가능성 고찰: 매체성 연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교육』 12.1(2008): 57-82.
- _____. 「여행기에 나타난 ‘문화번역’: 스태드만의 『수리남 탐험기』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51.4(2009): 157-173.
-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2005.
- 발터 벤야민.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최성만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08.

- 이명호. 「문화번역의 정치성: 이국성의 해방과 혼성의 시대」. 『경계위에 서라: 소통을 위한 인문적 상상』(탈경계인문학 연구단 2010 국내학술대회). 93-105.
- 진은영. 「소통, 그 불가능성 안의 가능성」. 『경계위에 서라: 소통을 위한 인문적 상상』 (탈경계인문학 연구단 2010 국내학술대회). 3-25.
- Bery, Ashock. *Cultural Translation and Postcolonial Poet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 Bolter, Jay David and Richard Grusin.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Cambridge: The MIT P, 2000.
- _____. and Diane Gronala. *Windows and Mirrors: Interaction Design, Digital Art, and the Myth of Transparency*. Cambridge: The MIT P, 2005.
- Delabastita, Dirk. "Translation and the Mass Media."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Eds. Susan Bassnett and Andre Lefevere. New York: Cassell, 1995. 97-109.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y Brian Massumi. Minneapolis: Minnesota UP, 1987.
- Derrida, Jacques. "Economimesis." *Diacritics*. 11,2(1982): 3-25.
- Jenkins, Henry.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2.
- _____. *Fans, Bloggers, and Gamers: Exploring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New York UP, 2006.
- Pratt, Mary Louise.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1992.
- Robinson, Douglas.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7.

From Translation/Cultural Translation Arguments to the Logic of Remediation of New Mediums/Media

Kim, Eunryung
(Ewha Womans University)

Much as translation is not a simple linguistic transcoding but a kind of cultural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after the process of cultural contact and cultural hybridization, both new and old media invoke the twin logic of immediacy and hypermediacy in their efforts to remake themselves and each other as they seek to reaffirm their status within our culture. And new digital media oscillate between immediacy and hypermediacy, between transparency and opacity. This oscillation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logic of remediation of mediums. This paper is proposing the possibility of the equivalency between the translation/cultural translation arguments and the logic of remediation of mediums or media.

The myth for pure language, a kind of origin that the translators aim for but fail to attain, can be assumed to be similar to the desire for transparent immediacy in both remediation in that both are inherently impossible to reach. And the new potential possibility for cultural translation emerging from the in-between space where cultural encounter and transculturation

happen can also be related to the potentiality in remediation in terms of remediation as refashioning and reform. This kind of potentiality can open up a new emancipatory possibility of our reality.

주제어: 재매개(remediation), 번역/문화번역(translation/cultural translation), 비매개(immediacy), 하이퍼매개(hypermediacy), 진동(oscillation), 창발(emergency)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